

구역연합 예배 순서지

2023.09.13.(수)

-일 시 : 정해진 날 -장 소 : 정해진 장소 -인 도 : 구역장 또는 강사

● 묵상기도/각 자 ● 기 원/인도자 ● 신앙고백/사도신경

● 경배찬송/새 95장(통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기 도/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예레미야(렘)14:1-12(구p.1073)/구역원 중에서

● 말 씀/“하나님이 낮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가?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1-2절) 그리고 그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3-6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1절), 이런 상황에 대해 유다는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는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여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가는 반응을 보였다(2절).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지만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고 근심스럽기도 해서 그들의 머리를 가렸고(3절), 땅에는 비가 안와서 땅 지면이 갈라지게 되어 밭가는 농부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렸고(4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돌 풀이 없어서 결국 새끼를 내버리게 되었고(5절), 들 나귀들은 벌거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숲이 우거진 산에서 서식한다) 같이 혈떡이고,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지게 되었다(6절). 유다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가뭄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유다성과 모든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심하게 올 때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2. 예레미야는 이러한 재난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7-9절)

예레미야는 이러한 가뭄의 재난이 벌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타락함으로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7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이 땅에 거하는 사람처럼, 하룻밤을 보내는 나그네처럼, 놀란 자처럼,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하지 마시고(8-9절상) 주는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한다(9절하). 예레미야는 가뭄의 재난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타락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민족이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을 포함한 백성이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삼상12:23),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임을 깨닫고 묵묵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해야 한다(벧전5:6-10).

3. 예레미야의 고백과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10-1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다(10절).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여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12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자신들의 잔꾀를 살아가다가 피곤해진 자들을 책망하셨다(사47:13).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의 신뢰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여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마25:30).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한 범죄를 한 일이 있으면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아와야 한다(시34:18,시51:17,고후7:10).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낮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더욱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한다.

● 나눔과 기도/다같이

1.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할게 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낮선 얼굴이 아니라 친밀한 얼굴이 되게 하소서

2.이 좋은 가을의 계절에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3.선선해지는 가을의 절기를 맞아 많은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4.연로하신 교우들과 모든 성도들을 환절기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키소서.

5.언약하고 병약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도와주소서.

6.송림1.2동지역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부지위치와 건축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7.우리 교회가 동구와 인천과 온 세계를 향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8.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국내의 정쟁도 끝나고, 남북의 평화통일도 속히 오게 하소서.

● 마무리 기도/말은 자 중에서

● 파송찬양/새263장(통197장) “이 세상 험하고” ● 주기도문/다같이